

2014년 창작뮤지컬 시범공연 지원사업 심사평

- 일시 : 2014. 5. 12(월) 14:00~16:30
- 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 : 김종현, 유희성, 조광화, 최종윤, 한정림 (가나다순)

창작뮤지컬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국내 창작뮤지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공연 제작지원에 선정된 작품은 실연 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우수공연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공연 제작지원은 공연되지 않은 신규 창작뮤지컬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공연화된 작품,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심의에는 총 28건이 신청되었고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11건을 선정하였다. 대본과 음악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심의하였으며, 대본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극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무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지원 신청 작품들은 이전보다 대본 소재와 음악적 색깔이 다양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반면, 대본과 음악의 조화와 완성도는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따라서 소재의 발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사업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무대화 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1개의 작품들은 시범공연 준비기간을 통해 작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본과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더불어 이번 시범공연을 통해 작품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창작뮤지컬 시범공연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